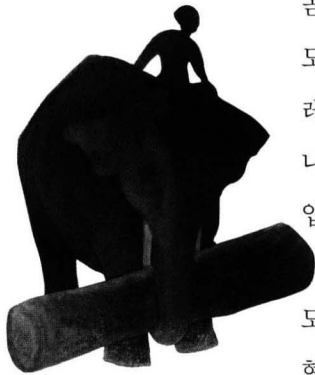




## 아주 작은 우연이 큰 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폭풍을 불러온 나비》  
러자 번카글 | 앤 제임스그림 |  
윤구병·윤나래 옮김 | 다섯수레 | 32쪽 |  
값 9,000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카피를 본 적이 있지요. 자칫 뉴스와 신문에 등장하는 유명한 어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부모님, 동네 청소부 아저씨, 교문 앞 신호등에서 아이들 등교를 돕는 자원봉사 아주머니. 세상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고 아름다워진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폭풍을 불러왔다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과학이론 중 하나인 ‘나비효과’를 그림책으로 보여줍니다. “저렇게 약한 날개짓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다면 이제 나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는지 자세히 보세요. 나비의 날개짓은 실바람에 힘을 주고 실바람은 곧 산들바람으로 변합니다. 산들바람은 건들바람 되고 센바람을 이루죠. 이 센바람은 가는 곳마다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아프리카, 브라질,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양을 지나 다시 나비에게로 돌아오지요. 작은 날개짓 한 번이 온 지구를 움직인 셈입니다. ‘나비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 낸 원리입니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다음 달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론이지요.

“이제 학교 입학해서 언제 다 크니?” 말씀하시는 어른들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처럼 작은 아이들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구요!” 잔잔한 날개짓에서부터 폭풍까지 불러오는 나비의 힘을 표현한 박진감 넘치는 그림이 과학이론과 ‘작은 우연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 소년 땡땡에서 청년 땡땡으로, 그러나 여전히 재미있는 모험의 세계



《땡땡과 카니발 작전》《콩고에 간 땡땡》  
에르제 글·그림 | 류진현·이영목 옮김 |  
술출판사 | 각권 62쪽 | 값 각권 8,500원



1929년에 태어나서 약 70년 동안 60개국의 사람들과 만난 《땡땡의 모험》. 상상력의 제왕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땡땡의 모험을 ‘금세기 마지막 애니메이션’이라 부르며 이 책이 움직이는 그림 못지 않은 역동성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지요. 땡땡이야기가 품격 있는 만화로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흥미로운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다는 데 있을 겁니다. 재미와 교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만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과학까지 세계사의 다양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소개했지요. 팔레스타인 문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간 유혈사태 등 그동안 다뤘던 정치 사회적 문제만도 한두 가지가 아닌 학습효과 만점의 이 만화는 곧 완간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땡땡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군요. 흰 양말과 승마 바지를 고수하던 패션을 벗기고 긴 바지를 입었고, 요가를 즐기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평화의 상징’을 새긴 모자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는 땡땡. 어린이들이 자라듯 소년이었던 땡땡도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나 봐요. 그러나 평화주의자이며 환경 보호론자인 땡땡의 가치관은 여전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소년기자 땡땡이 청년기자로 성장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인기 여가수 일행을 구출하고, 콩고다 이아몬드 산업을 독점하려는 시카고 갱단과 한판승부를 벌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요즘입니다. 사랑, 우정, 용서, 용기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들을 재치 있는 스토리로 보여주었던 땡땡 이야기를 다시 찾아 읽어보세요. **한**

김청연 기자

## 애절하게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내 아들, 내 어머니



《어머니》  
이미록 지음 | 정규화 옮김 | 와이그림 |  
계수나무 | 192쪽 | 값 10,000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은 시대, 지역, 인종을 초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유로 자녀를 가슴에 품기 바쁘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 마음을 쉽게 헤아리지 못하고 반항만 하지요. '아들을 위한 투쟁'이라는 원제를 가진 이 이야기도 신학문이 범람하고 전통이 흔들리던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을 애절하게 그려냅니다.

수심이는 곡식을 훔친 하인을 경찰에 넘긴 어머니의 행동에 실망합니다. 한 식구 같은 하인을 어떻게 신고하냐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반항하는 수심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신학문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기대에 못미쳐 고민하는 수심이. 결국 수심이는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본 날 집을 나갑니다. 수심이가 떠난 자리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앓은 어머니. 과연 세월이 흐른 뒤 먼 타국에서 어머니의 부음을 들은 수심이는 “아들아! 아무쪼록 너만은 고생스럽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한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사랑’과 ‘이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심이와 어머니는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지만 자꾸만 ‘이해의 벽’에 부딪치지요. 어머니는 모든 불행이 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아들은 신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의 생각들이 ‘고집’으로만 느껴져 집안의 사당을 없애버리고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세대와 신세대를 상징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안타까운 갈등을 담아냅니다. 단순 갈등구도를 넘어서 양반과 천민의 갈등구도, 신학문과 구학문의 갈등구도 등 역사적인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대립구조가 포함돼 있어 고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해 줄 만합니다. 독일에서 우리 전통을 드러낸 이야기들을 써온 이미록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 엄마도, 아이도 손 꼭 붙잡고 다니세요



《엄마를 찾아 주세요 | 한별이를 찾아 주세요》  
호박별 글 | 임소연 그림 | 시공주니어 |  
34쪽 | 값 8,000원

휴일날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를 잃어버리고 미아보호소에서 초조한 심정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주위에 볼 것이 많은 장소에 있을 때 어른이나 아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한별이와 엄마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한별이는 구경할 것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발견하고 잠시 한눈을 팔았고, 엄마는 아빠가 좋아하는 생선을 고르다가 한별이를 놓쳤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서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심정과 아이를 찾는 엄마의 심정. 아이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자동차도 로봇도 싫다고 말합니다. 오직 엄마만 보고 싶을 뿐이지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집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한별아!”를 외치다가 다른 집 아이를 한별이로 착각한 걸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지요. 이 책은 엄마와 아이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를 독특한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읽어도, 뒤집어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앞뒤 그림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특별한 점입니다. 무조건 한 이야기를 읽은 후 책을 거꾸로 뒤집어서 다른 이야기를 읽으면 되지요.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책을 펼치면서 자녀와 약속해보세요. “엄마 손 꼭 붙잡고 다니!” “엄마도 내 손 꼭 붙잡고 다녀요!” 막상막하입니다. **한별이**



김청연 기자

## 토끼야! 나는 네가 우리집에 와서 한 일을 알고 있어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글·그림 | 재미마주 | 32쪽 |  
값 7,500원

아이들은 휴일만 되면 “집에 있기 답답해! 밖에 나가자!” 고 보칩니다. 유심히 잘 찾아본다면 오히려 갖고 놀 것들은 집안에 더 많은데 말이지요.

베란다에서 살았던 토끼는 유리문을 통해 가족들의 모습을 줄곧 구경했었나봐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슬그머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냉장고를 뒤져 맛있는 음식을 꺼내 먹고, 만화 영화를 보며 여유를 누리는 토끼.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화장을 하고 장롱 속에 있는 한복을 꺼내 입는군요. 남의 집에 들어와 뭘 하는 거냐구요? 조바위까지 쓰고 웃고름을 매는 모습이 알뜰기보다는 귀엽게 느껴지니 화만 내지 말고 더 지켜봅시다. 토끼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 방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 놓고, 주인아저씨의 책을 꺼내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튀김용 젓가락을 이용해 롤러 블레이드까지 탄답니다. 이렇게 놀아대니 피곤해서 잠이 들 수밖에... “토끼야! 들키면 어떡하니? 얼른 일어나!” 라고 말하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날렵한 토끼는 가족들이 올 시간이 되자 얼른 베란다로 가버리거든요. 토끼는 아무도 자신이 집 안에 들어온 걸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림을 유심히 본 어린이는 벌써 토끼가 흘려놓은 똥을 발견했을 겁니다. “토끼야! 우리는 네가 우리집에 들어와 한 일을 알고 있어!” 라고 외치는 어린이는 관찰력 혹은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군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동안 작은 생물체들이 토끼처럼 집을 놀이터로 점거해 버릴지 모르니 “집에 있기 싫다” 고 보채지 마세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하는 2008년 최우수 그림책 10권 중 하나로 꼽힌 책입니다.



## 울긋불긋, 가을산을 다시 상상해 봐요



《산에 가자》  
이상권 글·한병호 그림 | 보림 | 32쪽 |  
값 8,000원

만화책, 컴퓨터 삼매경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모습을 볼 새도 없겠죠? “등산 하러 간다”는 어른들의 말에 “산에 가면 뭘 해?” 되묻기만 한답니다. 여기 산이 왜 좋은지, 계절이 변하고 자연이 바뀌는 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림책이 있으니 소개해 주세요.

솔이는 오늘 아빠와 함께 산에 갔어요. “단풍으로 뒤덮인 산에 무슨 길이 있을까?”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듯 산에는 나름대로 길이 나 있어요. 솔이와 아빠는 그곳에 오르며 참 다양한 놀이를 하지요. 청설모를 보면서 동물놀이를 하고, 나무를 흔들어 알록달록 나뭇잎이 내려오는 걸 구경합니다.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는 아빠와 솔이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아빠와 솔이의 산행 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뭇잎을 돈 세듯 세면서 가게놀이도 하고, 각시풀로 머리 땀기 놀이도 하고, 건너편 풍경을 바라보며 거북이, 손가락, 뚜껑을 상상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 책의 압권은 아빠와 솔이가 누워 쉬면서 나뭇잎을 바라보는 장면에 있습니다. 단풍축제가 열린 것 같은 풍경을 앞에 두고 누운 아빠와 솔이. 부녀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가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겨울을 맞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책입니다. 올해 가을산 풍경을 놓쳤다면 《산에 가자》를 읽으며 가족들과 함께 내년 산행을 계획해 보세요. **추천**

김청연 기자

